


보 도 자 료		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배포 일자	2018. 12. 13.(수)	
자료 문의	• 항만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- 김은수 실 장(051-797-4665) - 김동환 연구원(051-797-4913)	
배포 부서	• 기획조정본부 홍보출판실(051-797-4381, 4383, 4384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	

KMI, 「2018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」 개최

“화주-물류기업 얼라이언스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 추진 시급”

◎ 일 시 : 2018. 12. 12.(수) 07:00~10:00

◎ 장 소 :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

□ 한국해양수산개발원(원장 양창호)은 「2018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」을 12월 12일(수) 오전 7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.

□ 2012년부터 이어 온 이번 「국제물류투자 CEO 포럼」에는 정부, 공사, 해운기업, 항만운영기업, 국제물류기업, 금융기업 등 CEO급 인사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,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, 특히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인 동남아 지역 등에 대한 얼라이언스형 동반진출 가능성과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.



[해양수산부, 우정사업본부, 한국해양진흥공사, 인천항만공사, 여수광양항만공사, 울산항만공사, 한국통합물류협회, 한국항만물류협회, SM상선, 고려해운, 장금상선, 현대상선, 폴라리스쉬핑, SK해운, KSS해운, 코레일로지스, (주)선광, (주)한진, 동부익스프레스, 판토스, 현대글로벌비스, CJ대한통운, KEB하나은행, 부산은행, 수협은행, 우리은행, NOI컨설팅, 한국항공대학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]

□ 이헌수 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중국 및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미얀마 등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“화주-물류기업 얼라이언스 기반 해외진출 전략”을 발표하였다.

□ 이 교수는 물류 얼라이언스 모델을 ① 시장기반 공유, ② 기능 강점 활용 및 ③ 비용 강점 확보 얼라이언스의 3가지로 유형화시키고, 각 유형별 목적 및 주요 전략 체계를 소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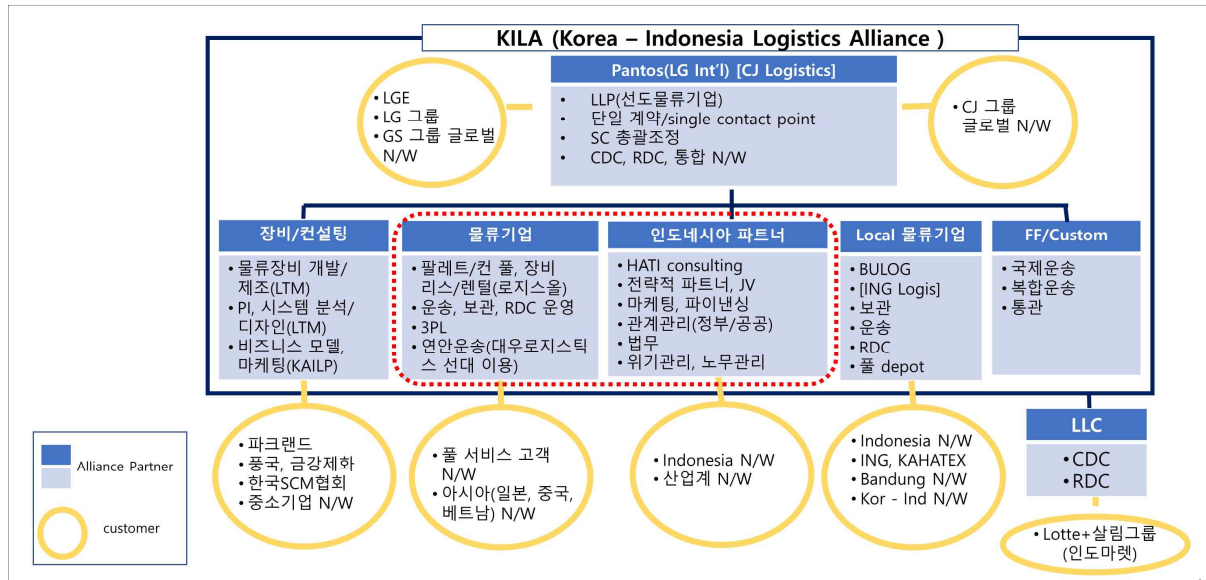
[물류 얼라이언스 모델별 목적 및 주요 전략]

시장기반 공유 얼라이언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제휴 협정, 공동 물류 등을 통한 파트너의 지역별 보유 서비스/인력/시설 사용 ● 공급망의 지역적/영역별 통합, 영역별 전문 물류기업 연계, 정보공유 통한 통합 GSCM 서비스 능력 확보 ● 파트너 강점 지역/영역에 대한 고객 추천, 공동 마케팅, 공동 브랜드 통한 고객 풀 공유 ● LLP(선도물류기업)의 시장선도 기능 중심의 전략적 제휴체계 구축 ● 신시장 개척, 시장 확대를 위한 동반진출
기능 강점 활용 얼라이언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장 특화 비즈니스 모델, 프로세스 혁신(PI) 등 신시장 진출/확대를 위한 비즈니스/GSCM 모델 능력 확보 ● 현지기업 및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유통물류/배송능력 활용 등 현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능력 확보 ● 물류-생산/유통/무역-IT-장비-렌탈/리스-MRO 제휴 통한 파트너의 기술 및 시스템 연계
비용 강점 확보 얼라이언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물류 대기업의 통합물류센터/운송능력 활용, 물류 N/W 공동투자, 공동물류 통한 규모의 경제 제고 및 위험 분산 ● 상호 고용 협약, 시설/장비/시스템 공동 이용 통한 인건비 및 제 비용 절감 ● 파트너의 첨단 시스템 공동이용, 경험/지식 공유 등 비용적 강점과 전문성 활용

□ 또한 인도네시아 통합 네트워크 구축, 동남아 국제(Cross-border) 트럭킹 운송 네트워크 구축, 신규시장 진출 관련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 및 신규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국제전자상거래, 통합 GSCM(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) 모델 등의 추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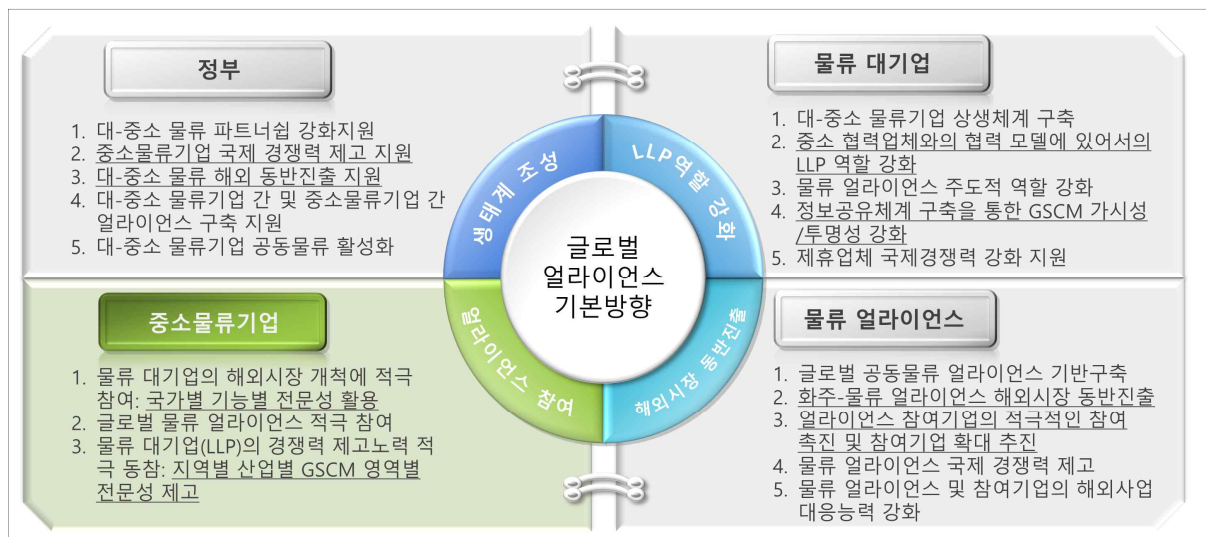
□ 특히 인도네시아 물류시장에 대한 접근이 사례 중 얼라이언스 진출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 즉 화주,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. 이 교수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“화주~물류대기업~물류중소기업(장비~컨설팅~팔레트 풀~포워더)~현지 물류기업이 연결되는 KILA(Korea-Indonesia Logistics Alliance) 모델 등을 제안하였다. 또한 물류인프라가 낙후한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진출의 경우, 공동물류 등을 위한 컨테이너터미널/야적장(CY), 물류센터(창고) 등 물류네트워킹에 요구되는 시설 투자에 항만공사 등 공공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KILA(Korea-Indonesia Logistics Alliance) 모델 (예시)



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화주-물류기업 얼라이언스 기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기 위해 정부, 물류 대·중소기업 등의 역할을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쳤다. 특히 정부는 화주-물류기업, 대·중소 물류기업 간 동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, 이는 국제물류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,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,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·중소 화주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정책을 수립하는 경제부처의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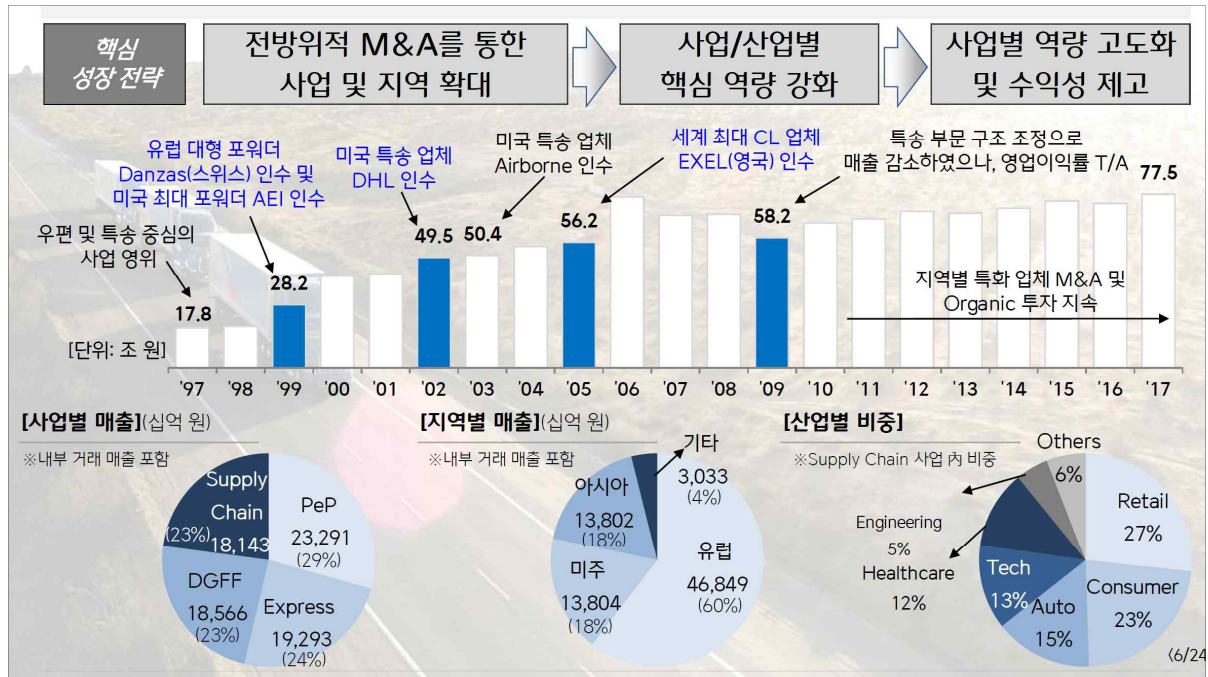
[정부 및 참여주체별 역할 제언]



□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재호 CJ대한통운 전략기획담당 상무는 최근 해외 현지 물류기업 M&A에 적극적인 자사 사례를 바탕으로 “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정책지원 방향”을 발표하였다.

□ 안 상무는 최근 중상위권 물류기업들의 활발한 M&A에 따른 글로벌 물류 시장 구조 변화 및 글로벌 1위 종합물류기업으로 알려진 DP-DHL의 성장 전략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. M&A 등을 통해 미국의 XPO Logistics 사는 2014년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순위가 20위권에서 2017년 5위로, DSV 사는 10위에서 7위로, CJ대한통운은 17위에서 14위로 상승했다. 또한 DP-DHL사의 외형적인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, 독일 우정국(DP)이 민영화 이후 Danzas(스위스), AEI(미국), DHL(미국), EXCEL(영국)사 등 지속적으로 해외 유수의 물류기업들을 M&A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. 즉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건실한 물류기업들 M&A하는 것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.

[DP-DHL사의 성장 과정 및 전략]



□ 이어 2015년 중국의 Rokin사 인수를 시작으로 2016년 Century(말레이시아), 2017년 Darcl(인도), Ibarakom(UAE), Gemadept(베트남), 2018년 DSC(미국)

등 해외 물류기업 M&A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해외전략을 소개하였다. 현재 전 세계 35개국에 246개 네트워크(거점)를 운영하면서 국내 5,500명을 포함하여 약 2만 명(2017년 기준)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 또한 CJ대한통운은 향후 지속적인 글로벌 M&A를 통해 현재 아시아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북미/유럽 등으로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마지막으로 안 상무는 국제물류투자펀드가 조성된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약 10년간 정부에서 추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등 주요 해외진출 지원정책들을 회고하면서, ① 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강화 및 ②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재정 지원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였다. 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❶ 화주-물류기업 연계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범위 확대, ❷ 해외 진출 화주기업이 국내 물류기업과 업무 위탁 계약 시 화주기업에 인센티브 지원, ❸ 해외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화주/물류기업에 대한 상세 DB 구축을 통한 매칭 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. 또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❹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등 「물류정책기본법」상 법적 근거 마련, ❺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필요한 재정 지원, 즉 해외기업 M&A를 위한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,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보유 Start-up 발굴/육성, 해외에서 한국인 물류인력 채용 시 재정 지원 등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.

□ 뒤이어 물류기업의 수익이 화주의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화주와 물류기업 간 동반 진출 또는 상생 협력이 본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. 이에 안재호 CJ대한통운 상무는 국내 타이어 제조기업과의 미국 동반 진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서비스 실적(Reference)을 확보함으로써 다국적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물류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 등을 소개했다. 또한 양창호 KMI 원장은 우리 물류기업들이 화주 Supply Chain의 파트너로써 장기계약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증명하면서 화주-물류기업간의 이익 공유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 또한 양창호 원장은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이 그간

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화주-물류기업 동반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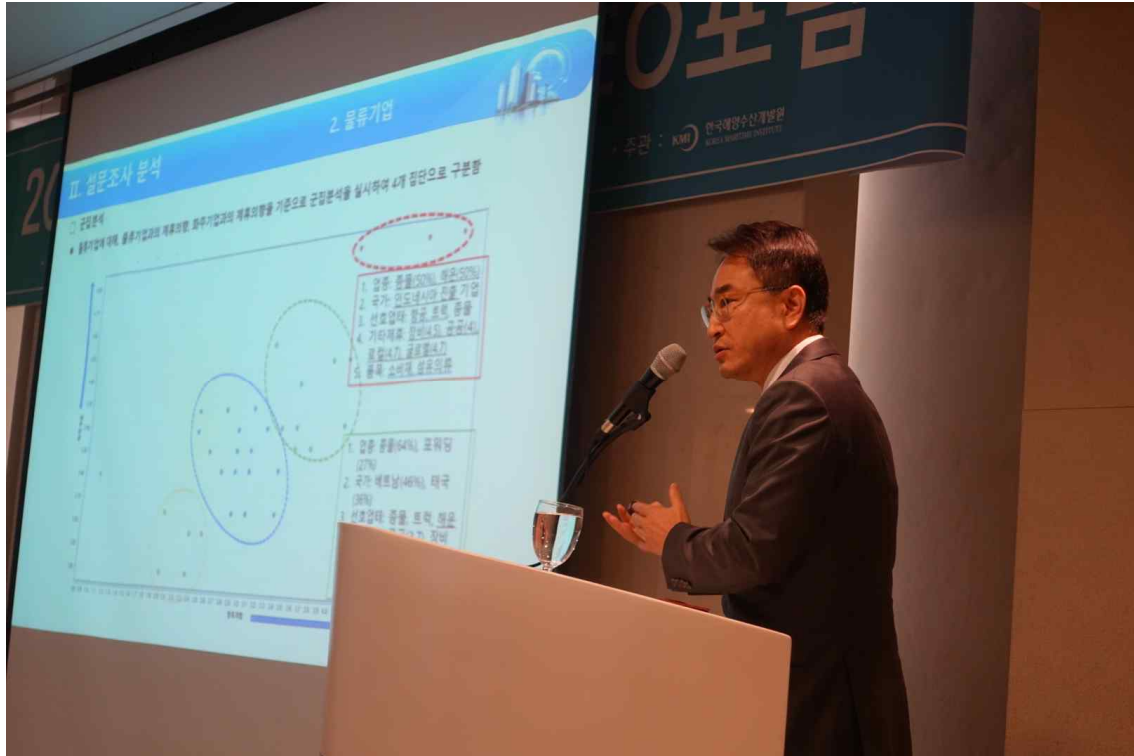
- 본 포럼 개최의 실무 책임을 맡은 김은수 KMI 국제물류연구실장은 “오늘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물류 촉진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많은 숙제를 확인했다.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남방·신북방 정책의 성공 열쇠 중 하나는 화주-물류기업간의 동반 진출에 있고, 우리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 우리 화주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경쟁력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 것에 달려있다”고 언급하면서 “2019년에는 우리 화주기업들의 글로벌 공급사슬 경쟁력 지원을 위한 물류 부문의 정책 개발 연구에 보다 집중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만·물류연구본부 김은수 국제물류연구실장(☎ 051-797-4665, kes1213@kmi.re.kr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사진



(개회사: 양창호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원장)



(주제발표 1: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)



(주제발표 2: 안재호 CJ대한통운 전략기획담당 상무)